

“막막하거나 힘들 땐 詩 한편 외워보세요”

생활속 시 외우기운동 펼쳐는 문길섭 시암송국민운동본부 대표

“시 암송은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있어 줄 소중한 벗입니다. 젊은이들은 너무 미루지 말고, 연세 많은 분들은 늦었다 생각지 마시고 시와 친해보세요.”

시를 일컬어 오래 사귀 벗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는 1000여 편의 시를 외울 만큼 시와 깊은 교제를 나눈다. 시암송국민운동본부 대표이자 드래프트를 관장인 문길섭 씨.

문 대표가 시 암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프랑스 유학을 하면서였다. 타국에서 공부 중압감으로 심신이 피곤할 때 평소 좋아하던 시를 읊조렸다. 그뿐 아니라 공부를 다 끝내지 못하고 귀국한 뒤로는 시를 외우면서 실의와 좌절을 견뎌냈다.

“일이 풀리지 않거나 막막할 때 시 한 편 읊조리다 보면 어느새 안정을 찾곤 했어요. 또한 누군가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 시 한 편으로 대신해 이편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구요.”

그는 시 암송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게 된 계기로 20여 년 전 “좋은 시는 자식처럼 아끼다”는 김충길 시인의 고백이 직접

佛 유학시절부터 1000여편 암송

휴대용 시선집 만들어 보급

‘흔들릴 때마다 시를 외웠다’ 펴내

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또한 “좋은 시를 만나면 여전히 가슴이 뒹다”는 정끝별 시인의 말에도 이끌렸다고 덧붙인다.

처음엔 좋은 시를 외우기 시작한 것이 점차 시 암송의 가치와 좋은 시를 소개하는 일로 확장된다. 시 암송 행복을 나누고자 2006년 시암송국민운동본부를 세우고, 이 일을 위해 휴대용 시선집을 만들어 보급하기에 이른다.

작은 수첩 크기의 휴대용 시선집에는 모두 50편의 명시가 수록돼 있다. 정완영 ‘초봄’, 박노해 ‘다시’, 이기철 ‘아름답게 사는 길’, 김초혜 ‘어머니’, 정지용 ‘호수’, 장석주 ‘단순하고 느리게 고요하’ 등 한국 시단에 빛나는 시인과 중견 문인들의 작품이 담겨 있어 문학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문 대표는 “시를 외우기 위해서는 왜 암



송이 중요한지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좋아하는 시를 반복해서 읽거나 가족, 주위 분들과 함께 암송을 하면 훨씬 잘 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시절에 좋았다고 생각되는 시와 비교적 짧은 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며 “종이에 쓰거나 시의 풍경을 상상하고 외우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사실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이 시를 암송하고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한편의 시를 외워 내 것으로 만드는 즐거움은 무엇에 비할 데 없는 잔잔한 감흥을 준다. 문 대표의 시 사랑은 누구를 향한 자랑도, 지식의 사치도, 지성인으로서의 교만도 아니다. 오로지 시 자체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발로로 보인다.

그렇다면 문 대표는 평소 어떤 시를 좋아하고 외울까. “과천득의 ‘이순간’, 정호승의 ‘봄길’, 정현종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일’과 같은 시를 좋아합니다. 서정적이며 서경적인 시 그리고 단아하면서도 정갈한 시들은 오래도록 여운을 주지요.”

한편 문 대표는 최근 ‘흔들릴 때마다 시를 외웠다’(비전과 리더십)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책에는 시를 암송하는 요령과 명사들의 암송 경험담, 시에 얽힌 이야기 등 50여 편의 글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문 대표는 “백세의 연인 자야 여사는 “1000억원이 그 사람 시 한 줄만 못해”라고 말을 했다”며 “시는 행복한 이들에게는 더 행복하게 하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좋은 말동무가 되어 준다”고 강조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시설 종사자 템플스테이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본부장 김진수)는 지난 9일부터 1박2일간 장성 백양사에서 지역 내 폭력피해자 관련 지원기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지난 2일 열린 1차 템플스테이 행사에 이은 2차 행사로, 지금까지 총 6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문화를 체험하면서 그동안 겪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유희상 조선대치과병원 전공의 최우수발표상

조선대치과병원 치주과 유희상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가 최근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최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

김병욱 교수 지도로 발표한 연제는 ‘광주시 치과의사회사(1945-1985) 전라남도 치과의사회 40년’을 주제로 광주시

치과의사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남도지부에 통합돼 있던 1945년~1985년의 40년사에 대해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행정자료·민간 빅데이터 활용 비대면 통계조사 강화”

유경준 통계청장 순천사무소 방문

유경준(사진) 통계청장이 10일 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향후 국가에서 보유하는 각종 행정자료와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면조사 중심에서 비대면조사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청장은 또 “최근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통계조사의 응답률향 개선과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

해 전자조사센터, 지역전담제 등을 활성화해 통계조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순천사무소의 업무를 보고 받고 직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노고를 위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지훈 9단, 일본판 알파고와 세차레 대국

도쿄서 19·20·23일

조지훈(60) 9단이 일본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AI)과 대국을 벌인다.

10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동영상 사이트 운영업체 ‘드왕고’는 AI 바둑 소프트웨어 ‘딥 젠 고’(Deep Zen Go)와 조 9단이 이달 19일과 20일, 23일 도쿄에서 세 차례 공개대국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세돌 9단이 세계의 대국을 펼쳤던 알파고에 맞서고자 일본 바둑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도쿄대 연구자들이 올해 3월부터 개발해 온 것이다.

이제 9개월에 접어들었지만, 개발팀은 그동안 알파고처럼 인간 두뇌를 모방한



‘딥러닝’(Deep Learning·심화학습)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프로바둑 기사와 대국을 벌일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 바둑계의 전설로 불리는 조 9단은 어린 나이에 일본 프로기사의 산실로 유명한 기타니 미노루 9단의 문하에서 수련, 1968년 일본기원 사상 최연소인 11세 9개월에 입단했다.

현재까지 총 74개의 타이틀을 차지하는 등 일본 통산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지난 6월 일본 바둑계 최고권위의 호칭 중 하나인 ‘명예 명인’에 등극했다. /연협뉴스



광주복지재단, 복지정보 공유워크숍

광주복지재단(대표 장현)은 지난 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텔리하우스에서 ‘복지정보기초 안내를 놓여라’라는 주제로 ‘복지공간’ 공유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공간은 복지현장에서 필요한 복지자원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복지정보 공유방’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운영협력기관 관계자,

대학생 서포터즈 등 50명이 참석해 복지공간간의 성과와 활성화방안 등 의견을 나눴다.

장현 대표이사는 “복지공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현장의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일보 유제관 부장 한국편집상 최우수상



광주일보 유제관 편집부장이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편집기자협회 제21회 ‘한국편집상’ 시상식에서 ‘광주는 일을 부르고 싶다’<2016년 5월 17일자 1면>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편집기자협회 제공>

전문건설협 광주시회 사랑의 연탄 배달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송승홍) 회원들은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서 ‘사랑의 온정나눔 연탄전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광주지역 독거노인 등 25명에게 각각 연탄 300장씩 총 7500장을 전달했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제공>

전통문화놀이협, 세계생활체육대회 참가



전통문화놀이협회(대표 조혜란)는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6 세계생활체육대회’에 참가. 전통놀이인 ‘호령지기(투호세트·굴렁쇠·제기)’를 선보였다. <전통문화놀이협회 제공>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재활용 화분 만들기’



전남자연환경연수원(원장 정승준)은 지난 9일 광주 무등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환경교육프로그램인 ‘재활용 화분만들기’를 실시했다.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서문 명언·안정혜씨 장남 휘(특허청 사무관) 전 기식(남해화학 대표이사)·배형례씨 장녀 이슬(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양=12일(토) 낮 1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
▲장종오(광주시 북구 운암동 우미아파트 관리사무소)·염복연씨 장남 우준(광주 북부경찰서)군 김형철(광주시 북구 건축과장)·김오례씨 장녀 민주(광주진흥고 행정실)양=13일(일) 오전 11시5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컨벤션 2층 엘루테홀.
▲양동희(전 법무부 교정국 광주교도소 근무)·김경순(전 전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씨 차남 요섭(목포해양경비안전서)군 정성숙씨 장녀 경화(여수종합병원 간호사)양=19일(토) 오전 11시 30분 나주시 영산로 나주교회 분당 1층, 문의 010-4276-1864.
▲임채수씨 삼남 용섭군 조상상(전 전남도 보건과장·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장)·문영미씨 차녀 정민양=20일(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현동742 파티오나인 5층 채플홀, 문의 010-7767-8999.

동문회

▲광주복성중 총동창회(회장 조정래) 제41회 한마음체육대회=12일(토) 오전 11시 고창CC 및 변산마실길 개최 오전 9시30분 모교출발, 문의 박동수 고문 010-6778-1998.
▲송의고 총동문회(회장 김길섭) 2016 송의가족 한마음축제=12일(토) 오전 9시 송의고 실내체육관.

종친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청년회장 이철환) 월례회=15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향우회

▲재광 나주향우회(회장 김보근) 이사

회 및 사무실 개소식=25일(금) 광주시 서구 매월253(공구 8동 204호) 문의 062-603-2795.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굿모닝보정기 광주서구점 무료 청력검사=노인 대상 방문 무료 청력검사, 청각장애인 상담, 가동 불편시 가정방문 청력검사 문의 062-375-927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

영)=자살! 숨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도 사망, 이혼, 실직,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부음

▲정병희씨 별세 성원·홍권·길홍·영숙·영남·영희·영옥 부친상 김형자·이희숙·차이화씨 시부상 김기중·이민행·전승규·방택원 빙부상=11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서원순씨 별세 오일목·율목·평목·선목·남순·남숙·은희 모친상 서진숙·김정화·신혜진 시모상 홍순필·김용완·신동영씨 빙모상=발인 11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の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김희순 님(여/84세) 子/子婦 : 여귀남/오정남, 귀호/하수만, 귀환/조선숙 귀준/오재진 孫 : 여석연, 남현, 경원, 수현, 윤혁 ●발 인 : 11월 11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1	301호 故문봉님 님(여/91세) 子/子婦 : 백대량/주남오, 종로/김향숙, 자선/정현주 女/婿 : 백순화/정상배, 영남/이강래, 삼숙/유용식 ●발 인 : 11월 12일 ●장 지 : 장흥장릉 선영 ●연락처 : 227-4382
401호 故김남기 님(남/69세) 子/子婦 : 김성일/선수정, 재열/백정애, 정열, 영열/김나운 孫 : 김경민, 장현 ●발 인 : 11월 12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3	402호 故김연순 님(여/90세) 子/子婦 : 이관교/김복심 女/婿 : 이광순/최남순, 광임/백경하 孫 : 이상환, 상인, 은영, 순영, 진영 ●발 인 : 11월 12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3
101호 故신귀래 님(여/96세) 子/子婦 : 나병남/문재성, 재열/백정애, 정열, 영열/김나운 女/婿 : 나경순/정수복, 명자/김병용 ●발 인 : 11월 11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000	102호 故재욱기 님(남/65세) 子 : 재종실 女/婿 : 재경희/한인희, 윤희/이종은 ●발 인 : 11월 12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

마 음 까 지 편 안 한
孝 金 浩 장례식장
 대표이사 구 제 길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